

자료제공 : 2024. 1. 1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소통홍보부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7쪽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02-2133-3550
에너지정책팀장	임승철	02-2133-3552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02-2640-5111
소통홍보부장	윤대열	02-2640-5150

서울시, 금일 14시 양천·구로구 일대 3만 8천가구 지역난방 공급 재개

- 서울에너지공사, 신정가압장 밸브 보수 및 부단수 방식 병행해 빠른 복구 총력
- 사고 발생 즉시 시(市) 현장상황실 운영, 시·구·유관기관 인력·장비 등 총동원
- 21개소 대피소 확보 및 전기장판 약 4천개, 히터 600여개 등 주민·취약계층에 지원

- 서울시는 어제 오후 3시 54분경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관련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18일(목) 14시부터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었던 양천구·구로구 고척동 일대(80개소) 37,637세대에 열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 복구를 맡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사고발생 즉시 밸브 보수(가압장 배수 작업)와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온수가 바로 일반가구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부단수(우회관로 연결공사)의 투트랙 방식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해 일대 가구의 열공급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치는 완료됐지만 공급관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가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밸브보수(가압장 배수작업)
 - 가압장내 중온수 배수작업(17일(수) 18:50~ 18일(목) 05:55)
 - 방수작업 통한 수온 하강 조치(05:55~07:33) → 임시 가설물 설치 및 작업발판 확보(06:50~07:37) → 밸브 보수(07:37~14:00)

- 한편 서울시는 17일(수) 상황 발생 즉시 통합지원본부와 현장상황실 설치·운영하고 200여명의 복구 인력을 비롯해 굴삭기(백호)·덤프트럭·배수펌프 등 15대의 장비를 즉각 투입해 빠른 복구에 나섰다.

- 특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양천·구로구청과 서울에너지공사 등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21개소 대피소를 확보했고, 전기장판 3,935개, 전기히터 600개 및 담요·일용품세트 등 구호물품과 응급구호세트 565개를 해당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등에 신속하게 배부했다.

- 오세훈 시장도 전날 오후 10시30분 경 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재난 현장지원버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 서울시는 향후 가압장 펌프 등 노후 장비 교체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고,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사진 >









